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ried Daughters' Caregiving Strss and the Influential Variables.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이신숙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서병숙

Dept. of Home Management Mokpo Univ.

Lecturer : Sin-Sook Lee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 Byong-Sook Seo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stress and to provide the way of establishing better relationship between aged parents and adult offsprings and the way of effective care-giving.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OVA,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First, The total points of daughter-in-laws' caregiving stress was 38.5 and daughter's caregiving stress was 27.3.

Secon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 daughters-in-law' age, old mothers' health status. An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among variables of living arrangement and daughters-in-law' age, living arrangement and birth order, birth order and old mothers' health status, living arrangement and daughters-in-law' age and old mothers' health status.

Thir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 daughter's age. An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among variables of living arrangement and daughter's age, daughter's age and birth order, living arrangement and daughter's age and old mothers' health status, living arrangement and birth order and old mothers' health status.

Fourth, Among daughters-in-law' variables living arrangement, age, old mothers' health status have influence on the care-giving stress.

Among daughter's variables living arrangement, age, birth order have influence on the care-giving stress.

I.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의 심화, 가치체계의 변동으로 인해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부양문제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할 가족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인 기능수행 면에서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원체계(back-up system)로서 불가피한 것이고(김태현, 1981), 우리의 현실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가족에 의한 노부모부양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지될 전망이다.

그 동안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노부모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성인자녀에게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는 규범과 의무에 기초한 수단적 이행이었고 그에 따른 부수적 산물은 '효'라는 윤리관념 속에 감춰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맺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외현적이며 가시적인 행위에만 집중할 때는 행위를 형성하는 내재적이고 비가시적인 힘이 무시되며 반복과 불화 그리고 오해가 나타나기 쉽다.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맺는 질적 관계의 만족은 부양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심한 스트레스에 부딪히면 무산되어 버릴 수 있는 감정적인 것이기에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간과할 수 없

다.

따라서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더 나아가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및 미래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양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한다면 더 나은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와 위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한 제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부양자가 갖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노부모와의 관계 및 개인적인 특성등의 역동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리라 고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노년의 어려움이 남자노인의 경우보다 더 심한 노모를 중심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기혼여성 자녀(며느리, 딸)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혼여성 자녀의 연령, 출생순위, 노모와의 동거여부, 노모의 건강상태를 주요한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노모와의 더 나은 질적 관계 및 미래의 보다 효과적인 부양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 자녀(며느리, 딸)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관련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2-1〉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관련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2-2〉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관련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3-1〉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3-2〉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제 1절 기혼여성 자녀의 지위에 따른 노모와의 관계

노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남성은 67.4세, 여성은 75.4세로 노인인구 중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통계청, 1991). 따라서 65살 이상된 홀로 된 여자노인의 수는 남자노인 수의 약 3배로 그들은 홀로 10여년을 더 오래 살면서 노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 노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노모들은 물질적 지지를 위해 자녀에게 더 의존하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에게 2배 이상의 가까움을 느끼며 도움을 제공한다.

여자노인의 수적인 우세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수혜자도 여성이고 가족내 보살핌을 담당하는 규범적인 친족역할을 하는 사람도 여성이다(Adams, 1968; Brody, 1981; Cicirelli, 1983; Rosental, 1985; Stone et al., 1987).

친정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모두 여성 대 여성이 맺는 상호관계이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친족역할을 하는 딸이 노모를 위한 보살핌과 사기에 중요한 정서적 만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딸들은 아들들보다 노부모에게 접촉하며 도움 제공을 더 좋아하는데, 홀로 된 노부모들도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하며 함께 살고 싶어한다(Brody & Schoonover, 1986; Horowitz, 1985).

역시 부계가족인 한국사회에서도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는 다른 어느 관계보다도 내심적이며, 일찍부터 서로가 부계가족의 주변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조상의 지위를 공유하기에 동정을 하며, 생활영역이 같고 관심도 같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에 있게 되는데, 딸은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학습하며 언어, 태도, 행위유형의 부모를 배우게 되고, 딸의 혼인에 어머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광규, 1975). 더우기 모녀관계는 딸이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가사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동등한 성인관계로 발전한다. 그리고 자녀의 탄생은 동등한 부모역할의 경험하게 되어 친정어머니와의 접촉을 더 가능하게 하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모녀관계는 반드시 의무에 의한 도움만은 아니고 오히려 동료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 딸의 입장에서 스스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갖는다(고선주, 1990). 또한 딸들은 노모를 돕는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애착의 높은 정도를 표현하였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며느리의 입장에서보다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양에 따른 비용은 낮은 반면,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느낀다고 하였다(Fisher, 1983; Shin, 1989; 고선주, 1990에서 재인용).

딸에 의한 노부모부양이 지배적인 서구에 반하여, 부계 직계가족의 형태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부양의 주담당자는 아들과 함께 공유의 책임을 갖는 며느리이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들의 혼인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들은 처음부터 아들-남편과의 끈으로 맺어진 '이방인'이다(Fischer, 1983).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 같은 생활영역에서 유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상하관계 이상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고부관계는 원천적인 대립관계와 근본적인

부정관계로 가장 약한 가족 관계선을 갖는다(이광규, 1975).

전형적인 핵가족을 이루는 서구에서도 시어머니-며느리간의 관계는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Radcliffe-Brown은 이러한 관계를 결혼에 의하여 창조되는 긴장의 관계라고 하였다. Schlien(1965; Fisher, 1983에서 재인용)의 조사에서도 가족 중 가장 싫은 대상은 시어머니라고 지적되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긴장을 발생하며 상호작용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든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권위에 며느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외면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서구화와 근대화로 인한 변화는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핵가족 이념의 유입으로 가족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크게 경제적 독립, 가치관의 변화, 효 개념의 약화이다(최재석, 1982). 게다가 기혼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는 시부모부양에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있어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노모와 딸의 관계는 세대 간에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화목하고 온정적이며 동료적이 될 수 있는 반면,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들-남편으로 맺어진 의무를 기반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제 2절 부양스트레스

1. 부양스트레스의 개념

부양스트레스는 부양부담도, 부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내지 부정적인 결과, 부양자 긴장, 부양문제, 부양으로 인한 짐, 부양으로 인한 고통, 역효과 등과 같은 의미로 부양자인 성인자녀가 피부양자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뜻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능력해진 부모를 위한 힘든 과업으로부터 신체적인 건강이 약화되며 우울, 걱정, 근심, 분노, 무력감, 불면증, 저하된 사기와

같은 정서적인 긴장을 경험한다. 또한 다양한 책임의 요구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 갈등, 소외, 자유와 시간에 대한 제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제한 등의 정신적인 소모도 가져온다(Cantor, 1983; Robinson & Thurnher, 1979). 더구나 부모가 더욱 의존하여 가는 시기에 부모를 돌보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40대와 50대의 중년이거나 초로(young-old)로 노부모와 함께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과 재정적인 면 등에서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부담도는 한층 더하다라고 할수있다(Brody, 1981).

노부모부양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급속한 인구의 변화는 특히 노년층에서 빠른 증가를 보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5.5%로 2000년대에는 6.8%, 2020년에는 12.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사회부, 1994). 게다가 의존을 수반하는 만성적인 질병과 정신적 손상의 비율은 전보다 증가되었고 또한 연장된 삶을 갖는 노부모에 비해 출생수는 줄어들어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명의 연장조로 인한 4-5세대 가족의 증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합한 역할모델이 없다. 따라서 현대 가족은 노인부양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윗세대의 증가는 부양자에게 더 많은 긴장을 가져오게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치 변화에 기인한다. 기혼여성들의 노동력 참여에의 급속한 증가는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무능력해진 배우자를 돌보았던 역할에서의 재배치 또는 잠재적인 감소를 가져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역할갈등의 새로운 압력이 가중된다. 또한 가치변화는 모든 세대가 남·녀의 역할을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부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오래된 가치'간에 갈등과 긴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역할에 참가할지라도 그들은 노모를 돕는 전통적인 역할은 계속 지속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돕는 비용이 그들이 받는 이익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심리적손상을 경험하게 된다(Brody, 1981, 1985; Cantor, 1983; Robinson & Thurnher, 1979). Motenko(1989)는 노부모부양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가족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Cicirelli(1981)도 연구조사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부모의 돌봄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긴장을 경험하고, 심신이 쇠약해지며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부양에 최선을 다하여도 부모가 만족해 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부양자가 갖는 부정적인 결과는 노부모와의 관계 및 제공되는 부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가족관계의 긴장을 가져온다. Cicirelli(1983)는 부양 후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앞으로 어머니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더 소극적으로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고, 노부모부양으로 인해 부부관계와 성인자녀 그리고 세대 간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부양자인 노부모들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여 사기가 내려가고 우울은 증가하며 장래의 전망이 어두워짐을 경험하게 된다(Dunkle, 1985; Johnson & Catalano, 1983). 그리고 역할갈등과 관련하여 딸이 불만족할 때 노모와의 관계의 질은 악화되며 가족관계 내의 불만족은 노모의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영향을 미쳐 이롭지 못하게 된다. 특히 홀로 된 노모에게서 이러한 증상은 더욱 심하게 된다(Scharlach, 1987).

2.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동거여부

노부모와의 동거가 부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연구들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다양성 때문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노부모와의 동거가 오히려 세대 간에 만족스러운 유대관계를 가져온다는 연구는 오랜동안의 동거로 인하여 노부모와 부양자녀 양자가 상호기대의 내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대 간의 전달(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이 순조롭게 되며 부

양자와 피부양자의 상호적응이 촉진되어 결국 세대간의 질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Dunkle, 1983; Soldo & Myllyluoma, 1983). 따라서 노모와의 별거자는 자신의 가정과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과중한 부담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지 못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갖는다고 하였다(Fischer, 1983). 또한 Suito와 Pillemer(1988)도 부모-자녀 간에 갈등의 높은 정도를 경험하더라도 오랜동거가 갈등해결의 능력을 서로 간에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조적으로 노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자가 별거하는 부양자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갖는다는 연구에서는 노인환자와 동거하는 부양자들이 부양스트레스 증상이 매우 높게 나타나 대부분 항정신성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와 생활만족감의 수준이 가장 낮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으며,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부족으로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George & Gwyther, 1986). Brody(1985)는 노부모와의 동거가 긴장의 가장 강력한 예언자이고 동거로 이루어지는 노부모 부양으로 부양자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지며 가장 낮은 수입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와 손상의 더 높은 정도를 반영한다(Stoller & Pugliesi, 1989).

또한 유가호(1976)도 고부갈등은 시모와 동거할 때 그 정도가 높았다고 했으며, 성미애(1991) 역시 직계가족보다 핵가족에서의 기혼자녀가 갖는 부양부담도는 더 낮고 노부모의 측에서도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도,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어,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는 양자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Cicirelli(1983)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까이에 사는 것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충돌을 일으킨

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동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부모 자녀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는 '수정 확대가족(modified extended family)'의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의 거주형태로 '거리를 둔 친밀감'이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현대의 젊은 며느리들이 시모와의 동거를 꺼리며 생활의 자립을 원하는 것으로 보아 노부모와의 동거는 부양자에게 더욱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양자의 연령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접촉은 노부모의 요구가 증가되는 시기, 즉 노부모의 신체적 기능의 하강과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으로 인해 의존이 많아지는 시기에 증가한다. 의존이 증가하는 노부모의 부양은 부양자인 성인자녀가 중년 또는 초로(young-old)의 시기에 부과되는 새로운 역할로서, 부양자의 연령은 노부모의 의존과 이에 따른 부양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Lang과 Brody(1983)에 의하면 부양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에게 주어지는 도움의 양도 많아져 40-49살된 여성들이 행하는 부모도움은 주당 3시간이며, 50-59살된 여성들은 주당 15.6시간, 60살된 여성들은 주당 22.7시간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부양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노부모의 연령도 증가하여 의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부모의 연령과 노부모 의존도의 정적 관계와 따라 노부모에 대한 서서비스 부양과 정서적 부양 및 경제적 부양의 수행정도도 증가하여(Hagestad, 1987; Lang & Brody, 1983)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나이든 성인자녀의 역할은 더욱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Blenkler, 1965; Cicirelli, 1981)에서는 도움의 양에 관계 없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와 더 조화로운 관계가 되는 개념을 '자녀의 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적 변화가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며 부모에 대한 동일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부양부담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Pillemer와 Suitor(1988)에 의하면 노부모들은 나이

가 더 적은 자녀보다 나이가 더 든 자녀를 막연한 친구로 여기어, 가족폭력은 가족의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부적 관계로, 노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양자 부담이 적게 나타나, 부양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부양부담은 적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갈등을 적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측정상의 문제와 일반적으로 자녀보다 더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표현하는 노부모의 응답에 의거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부양자의 측면에서 고려한 결과와는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Canada 연구에서는 50살 이상인 부인의 2/3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거노부모가 있고 의존하는 노부모의 3/4은 부양자녀의 연령이 50-60대로서, 중년기에 처한 많은 부인들의 변화된 역할의 하나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라고 하였다(Brody, 1985). 노부모 부양의 요구와 자녀양육은 중년여성의 취업 증가와 함께 '슈퍼 우먼(super women)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과 역할긴장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부양자의 연령은 부양자의 부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 부양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의 연령과 그에 따른 노화의 정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기되어 부양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부양자의 출생순위

우리사회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성인자녀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책임이었다. 특히 직계 가족제도 하의 장남은 전통적인 가계 계승자로서 재산 등 제 상속과 부모부양에 있어 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여느 자녀와는 다른 유대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남편이 장자인 만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공유의 책임을 갖고 지차 며느리들과는 다른 부양의식과 태도를 갖는다. 한편 부계 직계 가족제도 하에서의 딸에 대한 출가외인 사상은 결혼하게 되면 시가 위주의 생활로 친부모와의 관계는 미약하게 되어 딸의 친정 부모부양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다만 방위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함이 존재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첫째는 예로부터 '살림밀천'이나 '고명딸'로 불리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손아래 동생들에 대한 책임도 남달라 가정관리의 책임을 맡곤 하여 첫째의 위치는 타 동생들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피부양자인 노부모는 장남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고 부양자인 장남 부부의 부양 의식 역시 여전히 다른 자녀들보다도 높다. 현재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와 딸을 대상으로 부양책임 의식을 조사한 연구(이가옥외 3인, 1990) 결과 며느리의 58.5%가 장남을 부양자로 지정한 반면, 딸의 31.0%가 장남에 의한 부양을 주장하고 있어 며느리의 부양 책임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는 며느리의 72.3%가 '맡며느리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었고 기혼딸의 50%는 '친정 사정으로 인하여'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미혼여성들이 배우자 선택조건으로 장남과 외아들은 기피하고 비교적 부양책임이 적은 차남 이하의 서열을 가진 남성들을 원한다는 것을 볼 때, 장남의 부양책임이 타 자녀보다도 크며 따라서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볼 때 노부모가 장남, 장녀에게 기대하는 부양의존은 타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양·질적인 면에서 사뭇 다르고 그들 역시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뛰어나며 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담도도 차자들과는 다르리라 사료된다.

(4) 노모의 건강상태

의학의 발달은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지만, 노인들은 노화와 연결된 기능적인 무능력과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만성적인 성인병 즉 만성질환, 만성간장, 폐장, 심장질환과 적게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고혈압, 중풍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이가옥 외 3인, 1990). 따라서 노년기의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며 회복기간도 길어 노부모에 대한 서어비스부양은 주로 동거하는 자녀가 전담하는 실정이어서 노부모의 건강퇴퇴로 인한 의존성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부양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노부모의 건강상태는 친족관계와 접촉의 본질을 변경시켜 노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자녀는 방문을 빈번히 하였는데, 건강위기에 처한 노인의 90%는 자신들의 주된 부양자로 그들의 성인자녀를 거론하였다(Shanas, 1979). 그러나 병든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대부분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험이라고 하였고, 30%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한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의 건강손상은 신체적인 손상과 정신적인 손상으로 구분되지만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한편의 기능상실은 다른 편의 기능상실을 가져온다. 신체기능의 손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있지만, 개인에 따라 그 변화정도는 차이가 많다. 신체기능의 항목으로는 시력상태, 치아상태, 보행상태, 청력상태 등으로 손상의 정도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손상과 지능, 학습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인지적인 기능의 손상을 뜻하는 정신적 손상이 있다(Deimling & Bass, 1986; Poulshock & Deimling, 1984).

Zarit 등(1980)은 노인성치매 환자의 부양자 부담 측정에서 부담은 질병에 대한 대처보다 피부양자와의 잦은 만남과 비례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과 부양자의 주관적 부담과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고 단지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한다고 하였다(Geroge & Gwyther, 1986). 같은 맥락에서 노인환자의 장애 특성이 부양자의 건강과 사회심리적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Cattanch와 Tabes(1991)는 인지적 장애자와 기능적 장애자 그리고 비장애자를 부양하는 부양자의 부담은 서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여 Zarit 등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연구내용과 방법이 갖는 제한점으로 인한 결과 해석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연구들(이영자, 김태현, 1992; Deimling & Bass, 1986; Johnson & Catalano, 1983)은 부양자의 부담 정도가 노부모 건강의 여러 요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노부모의 단순한 육체적 제약에서부터 의사소통의 불능과 분열적 행동등 기능적 손상의 여러 유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건강손상 중 특히 분열적인 행동들이 두드러지게 되는 정신적 손상은 돌보는 이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Deimling & Bass, 1986; George & Gwyther, 1986; Zarit et al., 1980). 더욱 위험한 것은 부양자 자신도 손상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낮은 경제력을 지닌 경우이다(Soldo & Myllyluoma, 1983).

이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부양자에게 과부담이 될 뿐 아니라 부양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무능력 역시 대두되어 노인환자에게 질병의 악화를 가져오는 부적절한 보호가 될 수 있다. 즉 보살핌을 제공하여야 하는 압박, 경제적 어려움, 이질감 등의 과부담이 노부모를 잘못 대하거나 물리적 학대를 포함한 금전적, 물질적 갈취나 남용을 할 수 있다(Kosbery & Cairl, 1986)는 점에서 노부모의 건강과 관련된 서어비스적 부양과 부양자의 부담과는 관련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절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선정한 관련변수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 그리고 우리의 부양상황이 고려되었다. 그리하여 노모와의 동거여부, 기혼여성 자녀의 연령, 출생순위, 노모의 건강상태가 독립변수로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인 부양스트레스 척도는 본연구자가 선행연구(이신숙·서병숙, 1993)에서 개발한 부양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양스트레스 척도는 척도로서의 유용성 검사를 거쳐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총점의 점수가 많을수록 부양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79-.68의 범위에

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제 2절 조사대상 및 자료표집

본 연구는 양가에 적어도 한분의 노모가 생존해 계시는 K직할시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K직할시의 기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자료를 통해 본 조사에 사용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관련분야 전공교수 4인의 평가를 거쳐 질문지를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3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공과목의 훈련받은 학생들이 개별 면접하거나, J, M 국민학교 K, S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모두 750부였으나 면접과 전달을 통하여 그 중 697부가 회수되었고 기재내용의 부실과 응답이 획일한 자료를 제외한 663부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제 3절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Four-Way ANOVA, Duncan-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적용함에 있어 명목변인(Nominal Scale)들은 가변수화(Dummy) 하였는데 노모와의 동거여부(동거(0), 별거(1))와 기혼여성 자녀의 출생순위(장남·장녀(0), 차녀이하(1))가 이에 해당된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스트레스

변인	구분	며느리 (N=364)		딸 (N=299)	
		N	%	N	%
동거여부	동거	184	50.5	34	11.4
	거거	180	49.5	265	88.6
연령	20대 이하	65	17.9	52	17.4
	30대	170	46.7	175	58.5
	40대	113	31.0	67	22.4
	50대 이상	16	4.4	5	1.7
출생순위	장남·장녀	208	57.1	132	44.1
	차남·차녀이하	156	42.9	167	55.9
건강상태	비건강	162	44.5	95	31.8
	보통	84	23.1	93	31.1
	건강	118	32.4	111	37.1
부양 스트레스 M(SD)		38.5(13.3)		27.3(10.7)	

〈참고〉 며느리의 출생순위는 배우자의 출생순위에 의함.

제 2 절 연구문제의 검증

1. 연구문제 1의 검증: 기혼여성 자녀(며느리·딸)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표 1〉과 같이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평균 38.5로 딸의 평균점수인 27.3점보다 높게 나타나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노부모에 대한 아들의 부양의무를 당연히 여기는 부계 직계가족에서의 며느리의 부양수행이 딸보다 많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노모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딸과의 관계보다 관계이탈과 긴장감이 더하다라는 Fischer(1983)의 지적과 일치하여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노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기혼여성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와 관련변인간의 관계

1) 연구문제 2-1의 검증: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와 관련변인간의 관계

〈표 2〉와 같이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동거여부(F(2.36)=34.47, P<.001), 며느리

의 연령(F(2.36)=4.30, P<.01), 노모의 건강상태(F(2.36)=2.59, P<.01)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며느리의 연령(F(2.36)=4.93, P<.01),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배우자의 출생순위(F(2.36)=4.31, P<.01), 배우자의 출생순위와 노모의 건강상태(F(2.36)=3.48, P<.01),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기혼여성 자녀의 연령 및 노모의 건강상태(F(2.36)=1.97, P<.05)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며느리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가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건강이 좋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와같이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별거하는 며느리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음은 노모와의 동거로 인하여 부양수행도 더 많고 그로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성미애, 1991; Brody, 1985; George & Gwyther, 1986; Stoller & Pugliesi, 1989). 그리고 며느리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부양의 책임을 전담하는 며느리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노모의 연령도 증가하여 노모의 독립적인 생활이 감소하고 자녀에게 보다 의존하기 때문이다(김태현, 1981; Lang & Brody, 1983). 그러나 배우자의 출생순위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은 노모부양이 만며느리나 지차 며느리의 여부를 떠나 모든 며느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노모의 건강손상으로 인해 노모의 의존이 많아지며 이에 따른 돌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George & Gwyther, 1986; Zarit et al, 1980).

2) 연구문제 2-2의 검증: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

〈표 3〉과 같이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동거여부(F(2.74)=19.80, P<.001), 딸의 연령(F(2.74)=1.95, P<.05)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딸의 연령(F(2.74)=6.93, P<.001), 딸의 연령과 출생순위(F(2.74)=2.29, P<.05),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표 2) 며느리의 관련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변량원	집단	며느리 (N=364)					
		평균	Duncan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동거여부 (A)	동거	42.20	A	5059.29	1	5059.29	34.47***
	별거	34.74	B				
연령 (B)	20대이하	34.52	A	1895.24	3	631.75	4.30**
	30대	38.28	B				
	40대	40.40	B				
	50대이상	43.81	B				
출생순위 (C)	장남	39.27	A	360.85	2	180.42	1.23
	차남이하	38.72	A				
건강상태 (D)	비건강	40.14	A	466.00	2	233.00	2.59**
	보통	37.81	B				
	건강	37.56	B				
	A x B						
	A x C			1266.42	2	633.21	4.31**
	A x D			162.84	2	81.42	0.55
	B x C			1164.47	6	194.08	1.32
	B x D			880.28	6	146.71	1.00
	C x D			2045.16	4	511.29	3.48**
	A x B x C			1352.91	5	270.58	1.84
	A x B x D			1448.17	5	289.63	1.97*
	A x C x D			255.97	4	63.99	0.44
	B x C x D			1334.36	7	190.62	1.30
	A x B x C x D			0.00	4	0.00	0.00

*P<.05 **P<.01 ***P<.001

딸의 연령 및 노모의 건강상태($F(2.74)=5.38, P<.001$),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딸의 출생순위 및 노모의 건강상태($F(2.74)=7.34, P<.001$)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딸의 연령이 20대 이하나 50대 이상인 경우가 30-40대인 경우보다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상과 같이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딸에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모와 동거하는 딸이 노모와 별거하는 딸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딸의 연령이 20대 이하로 아주 낮거나 50대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부양스트레스가 높음은 딸의 연령이 적음으로써 나타나는 '자식으로서 성숙'(Blenkner, 1965)의 낮은 정도와 딸의 연령증가로 수반되는 노모의

연령증가는 노모의 의존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자 자신의 생식가족이 갖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가 증가되는 시기라고 고려되어 노모에 대한 부양수행이 더 많은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생순위와 노모의 건강상태에 의해서는 부양스트레스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은 실제적인 부양역할을 담당하는 며느리와는 달리 노모부양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딸에게는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연구문제 3의 검증: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1) 연구문제 3-1의 검증: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표 4〉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나타내었다. 표와 같이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노모와의 동거여부(-7.12), 며느리의 연령(2.07), 노모의 건강상태(0.84)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5% 이었다. 특히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10%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노모와 동거할 때, 며느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양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2) 연구문제 3-2의 검증 :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모와의 동거여부(-7.64), 딸의 연령(-1.61), 딸의 출생순위(-1.78)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1% 이었다. 그 중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8%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표 3〉 딸의 관련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변량원	집단	딸 (N=299)					
		평균	Duncan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동거여부 (A)	동거	34.24	A	1867.83	1	1867.83	19.80***
	별거	26.36	B				
연령 (B)	20대이하	29.65	A	409.46	3	136.49	1.95*
	30대	26.87	B				
	40대	26.27	B				
	50대이상	29.20	A				
출생순위 (C)	장녀	28.19	A	213.24	2	106.62	1.13
	차녀이하	27.51	A				
건강상태 (D)	비건강	27.28	A	93.46	2	46.73	0.50
	보통	27.96	A				
	건강	26.54	A				
	A x B			1307.45	2	653.72	6.93***
	A x C			34.34	1	34.34	0.36
	A x D			254.59	2	127.29	1.35
	B x C			864.82	4	216.21	2.29*
	B x D			473.66	6	78.94	0.84
	C x D			233.74	2	116.87	1.24
	A x B x C			131.12	1	131.11	1.39
	A x B x D			1523.53	3	507.84	5.38***
	A x C x D			1385.28	2	692.64	7.34***
	B x C x D			604.08	4	151.02	1.60
	A x B x C x D			0.00	0		

*P<.05 ***P<.001

〈표 4〉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며느리 (N=364)		
	B	β	Partial R ² (Step)
동거 여부	- 7.12	- 0.34***	0.10 (1)
연령	2.06	0.16**	0.03 (2)
건강 상태	0.84	- 0.03*	0.02 (3)
회귀 상수		42.27	
R ²		0.15	
F		19.13***	

*P<.05 **P<.01 ***P<.001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노모와 동거할 때, 딸의 연령이 낮을수록, 딸이 장녀일 때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표 5〉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딸 (N=299)		
	B	β	Partial R ² (Step)
동거 여부	- 7.64	- 0.29***	0.08 (1)
연령	- 1.61	- 0.17*	0.02 (2)
출생 순위	- 1.78	- 0.08	0.01 (3)
회귀 상수		46.09	
R ²		0.11	
F		7.62***	

*P<.05 **P<.01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 내·외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가족이 전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노부모 부양 역할을 담당하는 기혼여성 자녀의 부양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평균 38.5점으로 딸의 평균점수인 27.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P<.001 수준에서, 며느리의 연령과 노모의 건강상태는 P<.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며느리의 연령,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배우자의 출생순위, 배우자의 출생순위와 노모의 건강상태는 P<.01 수준에서,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기혼여성 자녀의 연령 및 노모의 건강상태는 P<.0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며느리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가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보통인 경우가 건강이 좋은 경우보다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P<.001수준에서, 딸의 연령에서는 P<.05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딸의 연령,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딸의 연령 및 노모의 건강상태, 노모와의 동거여부와 딸의 출생순위 및 노모의 건강상태는 P<.001 수준에서, 딸의 연령과 출생순위는 P<.0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딸의 연령이 20대 이하나 50대 이상인 경우가 30-40대인 경우보다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세째,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력이 큰 변인은 노모와의 동거여부(-7.12), 며느리의 연령(2.07), 노모의 건강상태(0.84)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5% 이었다. 즉 노모와 동거할 때, 며느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양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딸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모와의 동거여부(-7.64), 딸의 연령(-1.61), 딸의 출생순위(-1.78)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1% 이었다. 즉 노모와 동거할 때,

딸의 연령이 낮을수록, 딸이 장녀일 때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혼여성 자녀들이 노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거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노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어 며느리의 경우가 딸의 경우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노모와의 동거여부, 기혼여성 자녀의 연령, 출생순위, 노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기혼여성 자녀의 개인적이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설명력은 며느리의 경우 15% 이었으며 딸의 경우에는 1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혼여성 자녀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그들이 갖는 역동적인 상황에 의하여 다르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노모와의 관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즉 딸의 경우가 며느리의 경우보다 더 적은 양의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일본의 경우 노부모 부양이 주로 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부모부양도 아들(며느리)에 의한 부양에서 노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하여 부양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는 딸에 의한 부양으로 확대되어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을 한 자녀에게 일임하는 것보다 제자녀들이 분담하여 부양하는 방안도 다양한 측면으로 모색하였으면 한다. 또한 노모와의 동거여부가 부양스트레스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혼자녀들이 노부모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하고 접촉하는 수정확대가족이나 수정핵가족을 위한 방안이 요망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설명

력은 15% 내외로 낮게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고 간과된 타 영향변인의 탐색을 위한 후속 연구는 계속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2)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3) 성미애.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 부담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4) 유가효. 한국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76.
- 5) 이가옥, 권선진, 권중돈, 이원숙.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0.
- 6)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 분석. 서울: 일지사. 1975.
- 7) 이신숙, 서병숙. 부양자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1), 1993, 39-54.
- 8) 이영자, 김태현.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1992, 1-18.
- 9)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사회부. 1994.
- 10) 최재석. 한국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1982.
- 11) 통계청. 최근 인구동태 현황 및 신인구 추계결과. 1991.
- 12) Adams, B. N. *Kinship in an urban setting*. Chicago, IL: Markham Publishing Company. 1968.
- 13) Blenkner, M.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 Shanas & C. F. Streib (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 14) Brody, E. M.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1981, 471-480.

- 15) Brody, E. M.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85, 19-29.
- 16) Brody, E. M., & Schoonover, C. B. Patterns of care for the development elderly When daughters work and when they do not. *The Gerontologist*, 26, 1986, 372-381.
- 17) Cantor, M. H. Strain among caregiver :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1983, 597-604.
- 18) Cattanach, L., & Tabes, J. K. The nature of elder impairment and its impact on family caregivers' health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Gerontologist*, 31, 1991, 246-255.
- 19) Cicirelli, V. G. Kin relationships of childless and one-child elderly in relation to social servic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1(1), 1981, 19-34.
- 20) Cicirelli, V. G. Adult children and their elderly parents. In T. H. Brubaker,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s, 1983.
- 21) Deimling, G. T., & Bass, D. M. Symptoms of mental impairment among elderly adults and their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1, 1986, 778-784.
- 22) Dunkle, R. E. The effect of elders' household contributions on their depression. *Journal of Gerontology*, 38, 1983, 732-737.
- 23) Dunkle, R. E. Comparing the depression of elders in two types of caregiving arrangements. *Family Relations*, 34, 1985, 235-240.
- 24) Fisher, L.R. Mother and Mother-in-la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 1983, 187-202.
- 25) George, L. K. & Gwyther, L. P. Caregiver well-being :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1986, 253-259.
- 26) Horowitz, A.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 1985, 612-617.
- 27) Johnson, C. L., & Catalano, D. J.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upport to impair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1983, 612-618.
- 28) Kosberg, J. I., & Cairl, R. E. The cost of care index : A case management tool for screening informal care providers. *The Gerontologist*, 26(3), 1986, 273-277.
- 29) Lang, A. M., & Brody, E. M.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983, 193-202.
- 30) Motenko, A. K. The frustrations, gratifications, and well-being of 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2), 1989, 166-172.
- 31) Pillemer, K., & Suito, J. J. The presence of adult children : A source of stress for elderly couples'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1988, 717-725.
- 32) Poulshock, S., & Deimling, G. T. Families caring for elders in residence :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39(2), 1984, 230-239.
- 33) Robinson, B., & Thurnher, M. Taking care of aged parent : A family cycle transition. *The Gerontologist*, 19, 1979, 586-593.
- 34) Rosental, C. J. Kinkeeping in the famili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1985, 965-974.
- 35) Scharlach, A. E. Relieving feelings of strain among women with elderly mothers. *Psychology and Aging*, 2(1), 1987, 9-13.
- 36) Shanas, E.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2), 1979, 169-174.
- 37) Soldo, B. J., & Myllyluoma, J. Caregivers who live with depen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1983, 605-611.

- 38) Stoller, E. P., & Pugliesi, K. L. Other roles of caregivers :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6), 1989, 231-238.
- 39) Stone, K. S., Cafferata, G. L., & Sangl, J. Caregivers of the frail elderly : A national profile. *The Gerontologist*, 27, 1987, 616-626.
- 40) Suito, J. J., & Pillemer, K.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1988, 1037-1047.
- 41) Zarit, S., Reever, K., & Bach-Peterson, J.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 1980, 649-655.